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AI 모멘텀 재점검 국면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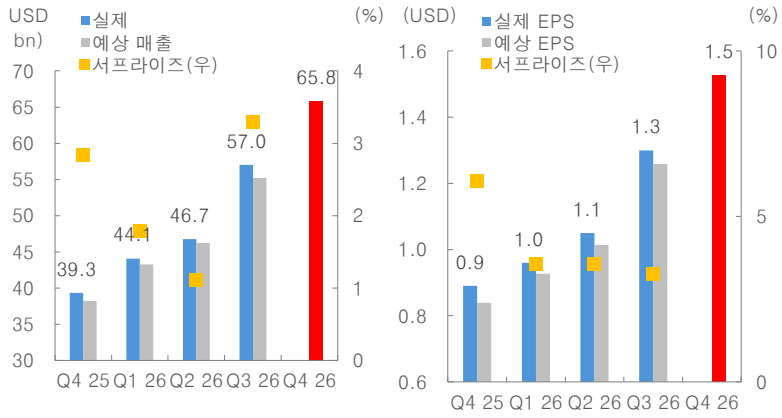
반도체의 주도력과 가치주 순환매의 균형, 변곡점 확인과 대응에 집중

- 글로벌 증시는 AI가 모든 주식을 끌어올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차별화 장세로 전환.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들의 등락 속에서도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 아웃퍼폼 지속
- 코스피는 4분기 실적시즌 9부능선 통과, 연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선행 EPS 상승 추세가 정체되는 변곡점에서도 사상최고치 랠리를 재개한 상황.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 대응이 중요
- 20일 밤 발표되는 미국 12월 PCE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YoY 2.8% 예상, 근원 PCE는 전월(2.8%) 대비 소폭 상승한 2.9%로 컨센서스 형성. 그러나 1월 CPI 둔화 이후 물가 우려가 낮아졌고 시의성도 떨어지기에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한다면 증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미국 4분기 GDP도 전분기(QoQ 연율 4.4%)대비 둔화된 3.0%로 컨센서스 형성. 다만 애틀랜타 연은 GDP Now는 그보다 높은 3.6% 예상. 예상치 대비 높은 성장이 관측될 경우 성장주 대비 가치주 로테이션 지속될 전망
- 26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발표에 따라 AI 산업 전망의 향방이 결정될 것. 현재 4분기 컨센서스 매출 658.2억 달러, EPS 1.52달러로 형성. 다만 시장은 이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대. AMD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실망으로 -17% 하락했던 바 있음. 젠슨황 CEO의 발언 또한 주목. 최근 AI의 기존 산업 잠식과 과잉투자 우려를 모두 잠재우면서도 AI 투자의 성장성을 어필해야하는 상황. 시장은 AI 우려를 어느정도 가격에 반영한 상태이지만 최근 연준 통화정책 전환 등 변곡점이 맞물려 포트폴리오 재편 수요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기점으로 상하방 변동성이 모두 커질 수 있음에 유의. 26일 세일즈포스의 실적발표 또한 소프트웨어 업종의 AI 잠식우려 등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6일은 한국은행 금통위 예정.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며 소비심리, 부동산, 환율 등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와 정책 기조를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코스피는 실적시즌을 소화하며 기업 이익 펀더멘털을 반영, 선행 EPS는 576pt까지 상승하며 최근 급등, 5,600선 돌파에도 불구하고 선행 P/E는 9.8배 수준, 코스피 장기 평균 선행 P/E는 10배 초반에서 형성되었고, 실적 상향 추세를 고려할 때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
- 반도체의 실적 주도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 조선 등 실적 뒷받침이 확실한 주도주 업종은 조정 시 비중확대 권고 유지. 에너지,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등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순환매 대응 유효. 내수주/시클리컬 업종은 미국 GDP, 한국은행 금통위, 3월 초 중국 양회를 앞두고 가치주 순환매 모멘텀 유효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6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와 업황 전반의 가이던스 확인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5,677	3.1	2.8	15.8	44.5	80.1	112.5	34.7
에너지	6,591	7.0	6.8	28.3	30.7	66.5	79.7	38.3
화학	5,173	2.9	0.7	11.5	7.1	32.5	37.3	15.6
비철,목재	8,628	0.4	-2.7	4.4	35.4	64.9	72.3	22.0
철강	2,703	3.4	1.7	11.3	23.6	24.9	46.0	24.5
건설,건축	2,131	4.6	4.3	22.3	47.9	42.1	82.7	40.1
기계	11,680	1.9	1.5	7.7	28.0	68.2	160.0	30.3
조선	10,154	5.7	4.9	-5.3	10.2	33.0	85.7	16.5
상사,자본재	4,668	1.9	0.0	6.9	47.1	86.2	141.3	34.5
운송	2,119	4.3	4.7	8.8	32.6	15.1	36.0	20.2
자동차	17,089	2.8	1.2	3.5	62.6	81.5	97.9	44.1
화장품,의류	5,750	0.6	-0.1	18.2	16.6	12.4	43.6	17.3
호텔,레저	2,456	-0.6	-1.0	12.9	13.9	9.5	42.9	6.3
미디어,교육	914	2.5	4.1	8.9	26.3	24.2	46.8	16.0
소매(유통)	2,615	-1.1	-2.3	23.1	29.5	42.6	60.0	29.7
필수소비재	7,732	0.0	-0.1	13.6	9.6	13.9	35.8	13.5
건강관리	12,149	2.4	1.8	7.5	26.2	40.8	34.3	14.8
은행	3,579	-0.3	-1.6	32.3	37.2	48.7	96.1	33.7
증권	3,998	10.0	17.9	62.0	82.8	101.4	171.6	78.1
보험	13,058	1.6	0.5	26.8	33.8	41.8	69.8	25.7
소프트웨어	7,555	1.1	-0.5	3.7	6.4	4.6	21.3	5.5
IT하드웨어	1,651	8.4	4.8	11.0	28.6	86.1	99.4	20.5
반도체	31,174	3.6	4.2	23.2	80.9	191.7	247.1	50.0
IT가전	2,431	5.3	1.7	15.2	18.9	44.3	40.9	31.2
디스플레이	743	5.0	2.4	-0.6	0.8	5.2	18.8	5.4
통신서비스	492	-1.8	3.0	27.2	35.7	27.9	44.2	34.1
유틸리티	1,789	3.7	3.5	11.7	30.6	54.1	130.7	31.8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9.4	16.9	18.9	3.3	3.0	3.2	17.0	17.6	17.1	0.1	2.9	
선진국	20.6	18.0	20.0	3.6	3.3	3.5	17.4	18.1	17.5	0.0	1.8	
신흥국	13.4	11.6	13.1	2.0	1.8	2.0	15.3	15.7	15.4	0.8	8.9	
북미	22.5	19.4	21.7	4.7	4.2	4.5	20.8	21.4	20.9	0.1	1.6	
유럽	16.0	14.3	15.7	2.3	2.1	2.3	14.3	14.9	14.5	0.3	2.9	
퍼시픽	17.9	16.3	17.8	1.9	1.8	1.9	10.6	10.9	10.6	1.2	5.0	
라틴	11.9	10.6	11.7	2.0	1.9	2.0	17.0	17.7	17.2	-0.6	5.1	
EM 유럽	9.9	8.7	9.6	1.4	1.2	1.4	14.1	14.4	14.1	1.0	2.1	▲
EM 아시아	13.9	12.0	13.6	2.1	1.8	2.0	14.9	15.4	15.0	0.9	10.1	
선진 시장												
S&P 500	22.7	19.5	21.8	4.8	4.3	4.7	21.2	21.9	21.3	0.0	1.8	
NASDAQ	27.5	22.6	26.1	6.4	5.4	6.1	23.3	24.0	23.5	-0.4	2.2	
프랑스	15.7	14.1	15.4	2.0	1.8	1.9	12.5	13.1	12.6	-0.2	0.4	
독일	15.6	13.5	15.1	1.8	1.7	1.8	11.6	12.5	11.8	-0.3	0.8	
영국	14.0	12.6	13.8	2.2	2.0	2.2	15.7	16.2	15.8	0.0	0.4	
일본	19.6	17.7	17.8	2.0	1.8	1.9	10.0	10.4	10.4	0.3	2.0	
신흥 시장												
중국	12.6	11.0	12.4	1.4	1.3	1.4	11.4	12.0	11.5	0.2	1.8	
인도	21.8	18.9	22.0	3.3	2.9	3.3	15.1	15.6	15.1	0.3	1.2	
한국	8.9	7.7	8.7	1.7	1.4	1.7	19.4	18.7	19.3	2.6	30.3	
대만	19.7	16.2	19.0	4.0	3.5	4.0	20.4	21.6	20.8	0.8	6.1	
브라질	10.7	9.4	10.5	1.8	1.7	1.8	17.1	17.9	17.3	-0.6	1.8	

기준일: 2026.02.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9							○	●		
선진국	20.0								○●		
신흥국	13.1							○●			
북미	21.7						○	●			
유럽	15.7								●		○
퍼시픽	17.8										○●
라틴	11.7										○●
EM 유럽	9.6										○●
EM 아시아	13.6						○●				
S&P 500	21.8						○	●			
NASDAQ	26.1			○		●					
프랑스	15.4							●		○	
독일	15.1								○●		
영국	13.8									●	○
일본	17.8										○●
중국	12.4							●	○		
인도	22.0					○	●				
한국	8.7			●	○						
대만	19.0									○●	
브라질	10.5										○●

기준일: 2026.02.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6.4	14.6	11.1	12.8
	선진국	14.3	14.4	11.8	13.1
	신흥국	28.2	15.3	6.7	11.0
권역(소)	북미	15.9	15.9	12.9	14.4
	유럽	11.3	12.1	10.0	11.0
	퍼시픽	10.5	9.4	8.3	8.8
	라틴	3.6	12.5	14.2	13.4
	EM 유럽	8.8	13.9	5.4	9.7
	EM 아시아	34.1	16.3	5.6	10.9
선진국	S&P 500	15.3	16.3	13.1	14.7
	NASDAQ	30.1	21.5	16.5	19.0
	프랑스	15.5	11.5	11.0	11.2
	독일	12.2	15.0	11.0	13.0
	영국	9.9	10.9	9.4	10.2
	일본	7.7	10.8	10.6	10.7
신흥국	중국	12.3	15.0	12.5	13.7
	인도	17.8	15.0	13.5	14.3
	한국	104.0	15.9	-9.1	3.4
	유럽	11.3	12.1	10.0	11.0
	브라질	-0.4	14.5	18.4	16.4

기준일: 2026.02.18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